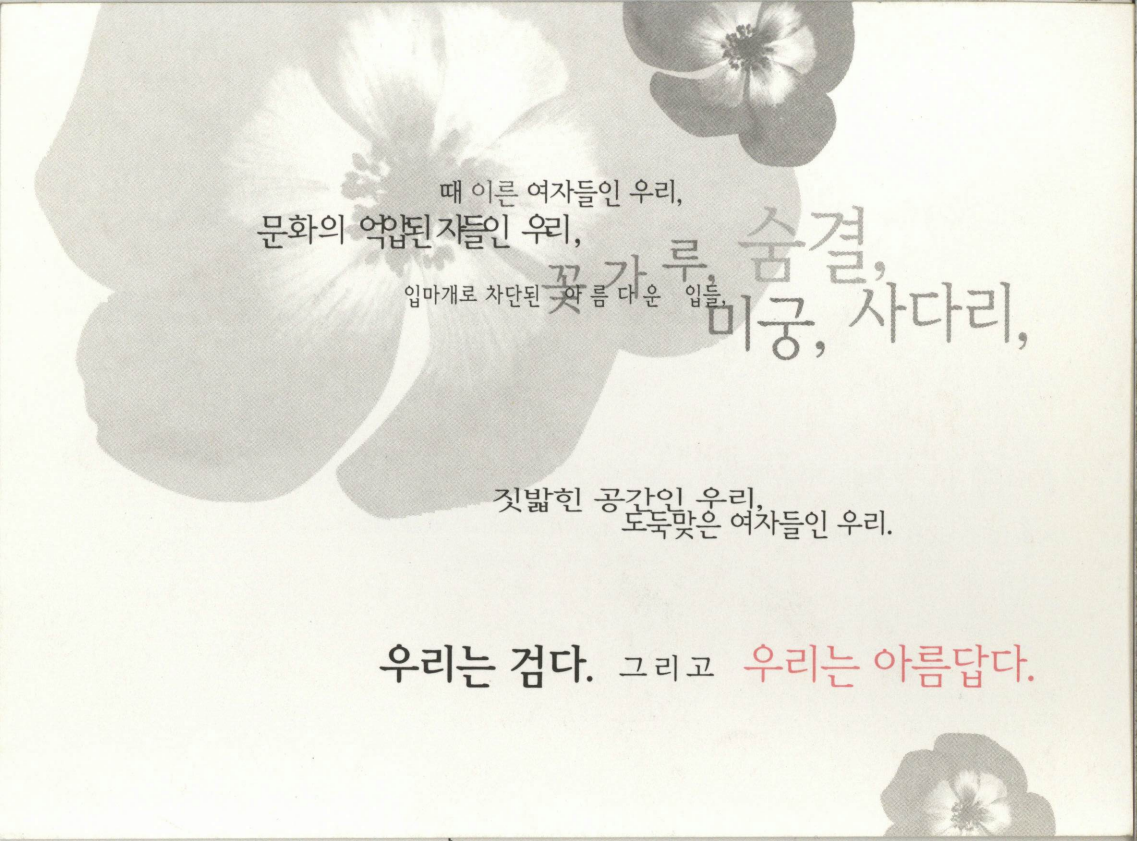




때 이른 여자들인 우리,
문화의 억압된 자들인 우리,

꽃가루, 숨결,
입마개로 차단된 아름다운 입들,
미궁, 사다리,

짓밟힌 공간인 우리,
도둑맞은 여자들인 우리.

우리는 검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답다.





제9회 여성제

여성, 욕망에 입을 그린다.



강연

여자 '되기'에 관한 색다른 욕망

- 대상으로서의 페니스와 주체로서의 여자이내에 관한
강사 권김현영 (동덕여대 강사/“언니네방” 기획자)

9/13(수) 늦은 7시, 논지당 세미나실

워크숍

오늘도 밝히는 하루

진행 원사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9/15(금) 늦은 7시, 학생회관 3층 푸른샘

영화

레즈비언 섹슈얼리티, 언니들의 달콤하고 치열한 일상!

영화 탐폰 설명서, Interviews with My Next Girlfriend,
The Ten Rules, 이반검열1

• 영화상영 후 '이반검열1' 감독과의 대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14(목) 늦은 7시, 백양관 강당

전시

욕망, 결코 숨길 수 없는

9/13~9/15 삼일 내내,

이른 10시~늦은 6시까지, 학생회관 앞

2006. 9.13(수)~15(금)

주관 제9회 여성제기획단 <여성욕망실천단> 주최 행동하는 일상, 힘이되는 여성주의 18대 총여학생회 <여기, 열다>